

배포 일시	2022. 10. 28.(금)		
담당 부서 <총괄>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홍락 (044-201-4204)
		담당자	사무관 김정한 (044-201-4181)
			주무관 조계웅 (044-201-4182)
보도일시	2022년 10월 3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30.(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 10월 30일부터 국제선 여객 운항횟수 40% 확대

- 김포~하네다 주56회로 증편 · 인천~브리즈번(호주) 등 운항 재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22년 동계기간('22.10.30~'23.3.25) 국제선과 국내선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를 인가하면서, '19년 같은 기간 대비 국제선 운항횟수(여객)가 최대 60%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제선)** 최근 국내외 방역규제 완화 및 겨울철 성수기 등으로 인한 여행 수요를 고려하여, 74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162개 노선(29개 운항재개), 주 2,711회(주785회 증가) 규모의 국제선(여객) 운항을 인가했다.
  - 이는 **코로나-19 이전('19년 동계)** 대비 운항규모가 58% 수준이며, 국토교통부는 동계기간 중 수요회복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증편도 추진할 계획으로, 이 경우 국제선 운항 회복률은 최대 60%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미주·유럽 등 노선은 약 70%, 대양주·중동 노선은 90% 이상 회복될 전망이다, 동북아 노선은 일본의 방역규제가 해제된 반면 중국의 입국 제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약 46%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22년 동계시즌 여객 정기편 지역별 인가(주당 운항횟수) 및 회복률 >>

구분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OS·러시아	미주	유럽	중동·아프리카	대양주	전체
'19. 동계 (운항실적)	2,522	1,462	124	379	129	56	42	4,714
'22. 동계 (인가기준)	1,160 (46.0%)	1,055 (72.2%)	37 (29.8%)	270 (71.2%)	95 (73.6%)	53 (94.6%)	41 (97.6%)	2,711 (57.5%)

※ '22년 동계 실제 운항 횟수 및 운항시점은 항공사별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항 스케줄은 항공사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필요

□ (국제선 노선 확충) 이번 동계기간에는 다양한 노선들이 약 3년 만에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인천~호주 브리즈번(주3회)·팔라우(주4회)·마카오(주29회)·이스라엘 텔아비브(주3회) 노선이 운항을 재개한다.

- 또한, 인천~일본 오키나와(주25회)·다카마쓰(주7회) 등 일본의 지방노선 운항이 재개되며, 특히, 김포~하네다 노선은 주28회에서 주56회로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 중국은 아직 강도 높은 코로나 방역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 운항규모를 주30회에서 주68회\*로 확대하기로 중국과 합의하였고 앞으로 항공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선양, 난징, 다롄, 옌타이, 쉰젠, 항저우, 광저우 등 한국發 24개 노선

□ (지방공항 국제선) 김해·대구·제주공항 등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규모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지역민의 항공교통 편의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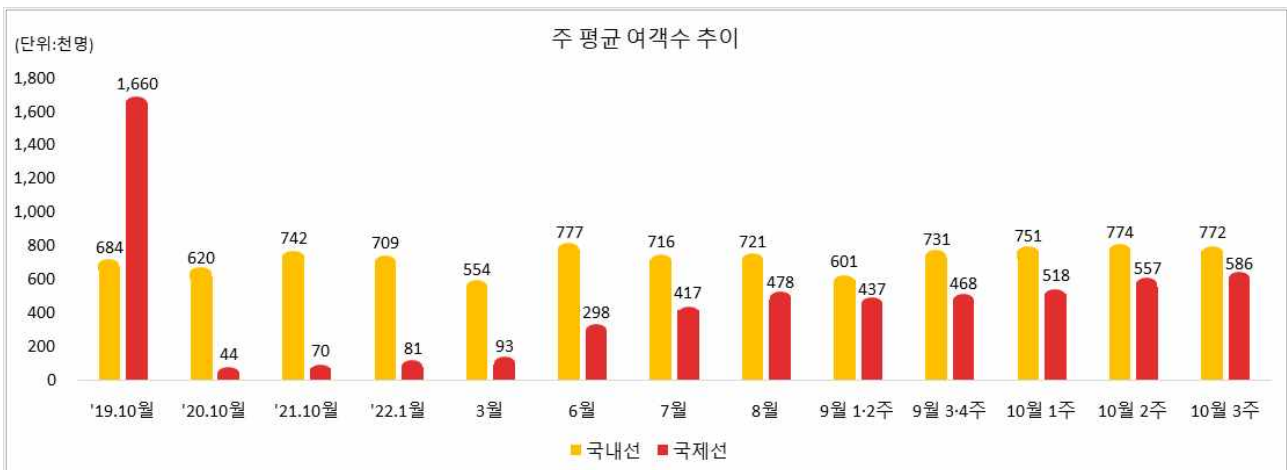
- 김해공항 국제선은 전월 대비 약 20% 증가한 주325회 운항(주54회 증가)될 예정으로, 김해~후쿠오카(주56회)·오사카(주35회)·삿포로(주14회)·나리타(주21회)·오키나와(주7회, 운항재개) 등 주요 일본노선이 확대된다.
- 대구공항 국제선은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대구~홍콩(주14회)·나리타(주7회) 노선이 재개되면서 전월 대비 약 85% 증가한 주87회(주40회

증가) 운항 예정이며, 제주공항 국제선 역시 제주~후쿠오카(주3회)·나리타(주3회)·오사카(주7회)·홍콩(주8회) 등 노선 재개에 따라 전월 대비 70% 증가한 주41회(주26회 증가) 운항할 계획이다.

□ (국내선) 그간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10~20% 증가해왔던 국내선은 국제선 운항 재개에 따른 영향으로 '19년 동계기간과 유사한 규모로 조정되면서 총 9개 항공사 대상으로 19개 노선(내륙노선 8개, 제주노선 11개), 주1,909회 국내선 운항을 인가하였다.

□ (여객 회복률) 올해 1월 국제선 평균 주 단위 여객(8.1만 명)은 '19년 10월 대비 약 4.7%에 불과했으나, 방역규제 완화(6월)와 여름성수기(7.8월) 영향으로 여객 수는 점차 증가하였고 최근 입국 후 PCR 폐지(10.1)와 일본 방역규제 해제(10.11) 등으로 여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10월 3주 여객(58.6만 명)은 '19년 10월 평균 대비 약 35.3% 회복하였다.

\* ('19년 대비 여객 회복률, 주 단위) '21.10월 4.2%→'22.1월 5.6%→'22.3월 5.6%→'22.6월 18.0%→'22.8월 28.8%→'22.9월 27.0%→'22.10월 3주 35.3%



○ 여객 수 증가 대비하여 항공업계 역시 인력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승무원들의 복귀 증가와 함께 지상조업사의 인력도 단계적으로 충원 중이며, 카트·청소·보안 등 공항 근무자도 현원 80~90% 유지하면서 급증하는 공항 이용객에 대비하여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다.

\* (승무원 복직률) 운항승무원 '22.6월 89%→9월 93%, 객실승무원 '22.6월 41%→9월 56% (인천공항 지상조업인력 충원율) '22.4월 6351명(62.3%)→'22.9월 7,009명(68.7%)

-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최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방역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이번 동계기간 항공편이 대폭 회복되었다”면서,
- “항공편 회복을 위해 중국 등과 협의를 적극 진행하는 한편, 공항 운영 인력 준비상태 등도 철저히 점검하여 여객수요 회복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홍락	(044-201-4204)
		담당자	사무관	김정한	(044-201-4181)
		담당자	주무관	조계웅	(044-201-4182)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	책임자	과 장	김남균	(044-201-4207)
		담당자	사무관	박지윤	(044-201-4215)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영혜	(044-201-4219)
		담당자	사무관	박춘식	(044-201-4224)

**참고 1**

**'22년 동계('22.10.30~'23.3.25) 국가별 여객 정기편 운항계획**

(단위 : 주단위/왕복)

국가	'19년 동계 ('20.1)	'22년 동계		국가	'19년 동계 ('20.1)	'22년 동계	
		운항 횟수	회복률 ('19.동 대비)			운항 횟수	회복률 ('19.동 대비)
동북아	2,522	1,160	46.0%	미주	379	270	71.2%
일본	845	736	87.1%	미국	349	245	70.2%
대만	275	155	56.4%	캐나다	24	24	100%
홍콩	157	141	89.8%	멕시코	6	1	-
중국	1,164	68	5.8%	유럽	130	95	73.1%
몽골	20	31	155.0%	프랑스	19	18	94.7%
마카오	61	29	47.5%	네덜란드	11	8	72.7%
동남아	1,462	1,055	72.2%	영국	19	13	68.4%
태국	231	179	77.5%	독일	26	24	92.3%
인니	37	28	75.7%	폴란드	5	5	100%
싱가폴	67	88	131.3%	핀란드	7	6	85.7%
필리핀	350	235	67.1%	헝가리	3	5	166.7%
베트남	572	416	72.7%	이탈리아	18	8	44.4%
미얀마	11	6	54.5%	스페인	12	5	41.7%
캄보디아	34	25	73.5%	오스트리아	3	3	100%
말레이시아	120	60	50.0%	체코	7	-	-
라오스	36	14	38.9%	중동· 아프리카	56	53	94.6%
브루나이	4	4	100%	UAE	21	18	85.7%
서남아·CIS· 러시아	123	37	30.1%	카타르	7	7	100%
카자흐스탄	9	9	100%	터키	19	14	73.7%
우즈베키스탄	13	13	100%	에티오피아	5	4	80.0%
인도	14	11	78.6%	사우디 아라비아	-	7	신규
스리랑카	3	2	66.7%	이스라엘	4	3	75.0%
네팔	4	2	50.0%	대양주	42	41	97.6%
몰디브	3	-	-	호주	24	28	116.7%
러시아	78	-	-	뉴질랜드	12	9	75.0%
합계	4,714	2,711	57.5%	팔라우	6	4	66.7%

《참고사항》

- 1) '19년 동계는 '20년 1월 첫째주 실제 운항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 2) 김포공항은 부정기편 형식이나, 정기성 성격임을 감안하여 포함
- 3) 시즌 중 최대 운항횟수(주당)으로 산정(시즌 내 기간별로 운항횟수가 상이한 경우)

**참고 2**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신규 운항재개 노선**

상대국	국내공항	상대공항	최근 운항 시점	'22.동계 운항개시일
일본	인천	구마모토	'19년 하계	'22.12.04.
		다카마쓰	'19년 동계	'22.11.23.
		미호(요나고)	'19년 하계	'22.12.01.
		사가	'19년 하계	'22.12.23.
		시즈오카	'19년 동계	'22.12.01.
		하네다	'19년 동계	'22.10.30.
		히로시마	'19년 동계	'22.12.02.
	김해	오키나와	'19년 동계	'22.12.02.
	대구	나리타	'19년 동계	'22.11.11.
	제주	후쿠오카	'19년 동계	'22.12.01.
		나리타	'19년 동계	'22.12.01.
		오사카	'19년 동계	'22.11.11.
	김포	오사카	'19년 동계	'22.10.30.
중국	인천	엔지	'19년 동계	'22.10.10.
		지난	'19년 동계	'22.10.31.
	김해	엔지	'19년 동계	'22.11.23.
대만	인천	가오슝	'19년 동계	'22.12.01.
		타이중	'19년 동계	'22.10.30.
	김포	쑹산	'19년 동계	'22.10.30.
마카오	인천	마카오	'19년 동계	'22.12.01.
홍콩	대구	홍콩	'19년 하계	'22.12.01.
	제주	홍콩	'19년 동계	'22.12.02.
베트남	인천	껀띠	'19년 동계	'22.10.30.
		달랏	'19년 동계	'22.10.30.
캄보디아	인천	시엠립	'19년 동계	'22.03.05.
필리핀	김해	칼리보	'19년 동계	'23.01.01.
이스라엘	인천	텔아비브	'19년 동계	'22.12.26.
호주	인천	브리즈번	'19년 동계	'23.01.01.
팔라우	인천	코로르	'19년 동계	'22.10.30.

※ 항공사가 '22년 동계 운항을 인가한 시점('22.10.20) 기준으로, 구체적인 운항일정은 항공사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항공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미리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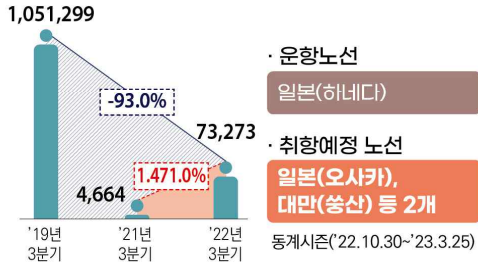
참고 3

주요 공항별 국제선 취항노선 및 여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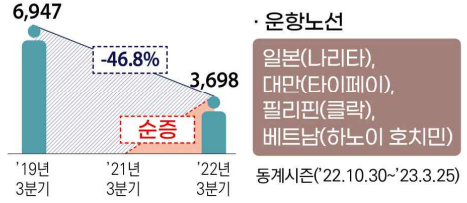
주요 공항별 국제선 취항 노선 및 여객 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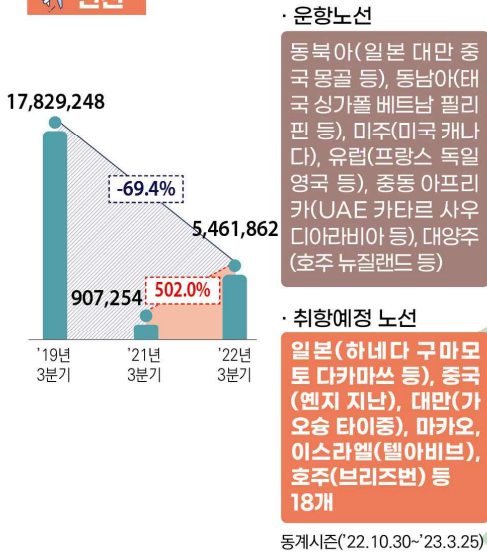
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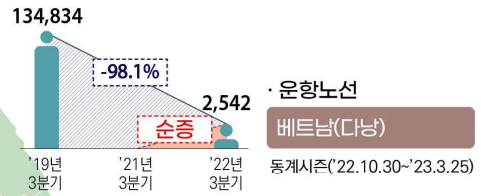
양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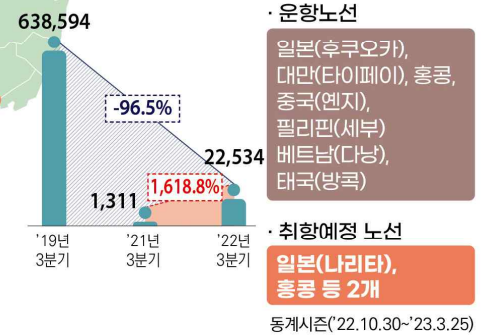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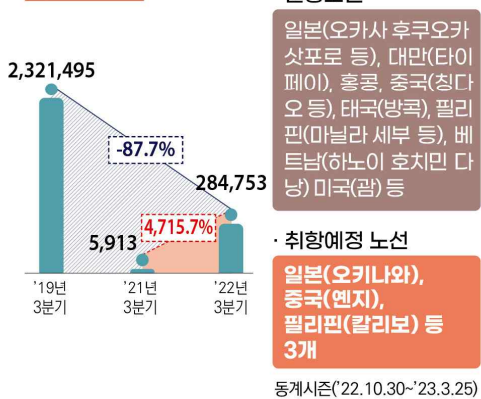
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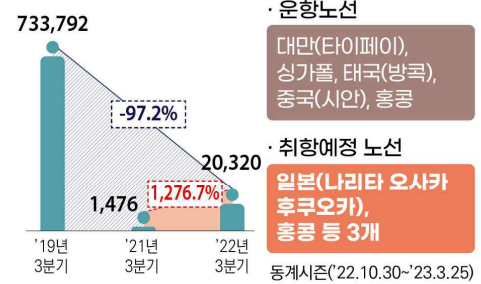
대구



김해



제주



※ 항공사가 '22년 동계 운항을 인가한 시점('22.10.20) 기준으로, 구체적 운항일정은 항공사 사업계획에 따라 바뀔수 있으므로 항공사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필요